

PP시장 판도변화 뚜렷

삼성 사출 · 현대 압출 시장 장악위해 25~40% 할인 공세

향후 PP시장 판도가 삼성 · 현대의 본격적인 참여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1년 상반기, 본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유화 37%, 호남석유화학 30%, 호남정유 22%, 유공 10%, 동양나일론 2% 등의 시장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91년도 4/4분기에는 일부 품목에서 삼성과 현대가 각각 25%, 30%의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장판도 변화는 삼성, 현대 두 업체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1> 1991년 4/4분기 PP가격

(단위:원/톤, 달러/톤)

구 분	지도가격	내수로칼가격	수출가격
호 모	678,000	750 ~ 760	650 ~ 850
랜 덤	878,000		
블 록	827,000		

현재 국내 합성수지 시장은 전반적으로 공급과잉이 심각,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10~30% 할인된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규업체인 삼성과 현대가 PP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출과 압출제품 가격을 30~50%까지 할

인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P의 정부 지도가격은 도착도가를 기준으로 Homo가 67만8000원(OPP는 70만6000원), Random이 87만8000원, Block이 82만7000원(Copolymer는 93만3000원)이다.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750~76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내수 로칼가격은 사출용이 650~670달러, 필름용이 800~850달러선에 형성돼 있다.<표1 참조>

그런데 국내 PP시장은 90년 6월까지 대한유화 · 호남석유화학 · 호남정유 3개업체가 주도해왔으나, 유공이 10만톤 규모 공장을 완공, 90년 10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 공급과잉이 표면화됐고, 지난해 3/4분기 이후 삼성과 현대가 각각 17만5000톤과 17만톤 규모의 공장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공급과잉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표2> 1991년 하반기 PP 국제가격 동향

(단위:US달러/톤)

구 분	'91.6	7	8	9	10	11	12
미 국	728-794	728-772	728-772	728-772	772-816	772-816	772-816
서 유 럽	600-639	617-685	613-682	680-739	617-735	649-757	684-749
대 만	844-859	867-883	876-892	867-882	833-850	812-829	812-829
동 남 아	760-850	740-820	720-770	700-760	680-730	670-720	670-720
한 국	1,014	984	986	974	898	898	893

현재 국내 PP 생산능력은 대한유화 35만톤, 호남석유화학 22만톤, 호남정유 16만5000톤, 유공 10만톤, 삼성종합화학 17만5000톤, 현대석유화학 17만톤 등 총 126만톤 규모이다. 수요는 91년이 내수(로칼포함) 53만9000톤, 수출 22만4000톤 등 총 76만3000톤이었으며, 올해는 내수 57만톤, 수출 42만4000톤 등 총 99만4000톤으로 공장가동률이 평균 7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대림산업이 올 12월 8만톤 공장을 준공, 92년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공급과잉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으로 인한 시장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 그레이드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1년 특수 그레이드 PP 수입량은 1만5000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차별관세가 폐지되고 대북 교류 활성화로 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올해안에 뚜렷한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있으며, 국내 업체끼리의 과도한 수출경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조정을 거쳐 삼성·현대가 포함된 수출추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2/1/15>